

유 학 보 고 서

파 견 대 학	천진사범대학교
파 견 기 간	2016년 2월 - 2017년 1월
학과 및 학년	문예창작학과 3
성 명	현 은 미
제 출 일	

- * 유학보고서는 해외파견 유학/연수 참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앞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 파견대학 및 유학관련 사진(파견대학/기숙사내부 등)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1. 파견대학 및 날씨, 음식, 지역 등 소개

학기시작: 2016년 2월

학기종료: 2017년 1월

방학:

학교주소: 중국 천진시 남개구

천진에는 여러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천진사범대학교(이하 사범대)에서 유학생생활을 했습니다. 사범대 근처에는 대학로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다른 대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어 시내 중심가나 공항, 역 등 교통편이 좋습니다. 특히 사범대 본교에는 한국어학과가 있어,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들을 사귀기 쉽습니다.

천진은 북경과 인접한 대도시입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30분 만에 북경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이 많아 외국인의 비율도 상당합니다. 특히 메이장, 양광, 아오청 등의 지역은 한인 타운이 조성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인이 많습니다. 한국 물건도 구하기 쉽습니다. 또, 날씨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천진의 위도가 높아 춥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춥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우마이라고 부르는 안개가 자주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나타납니다. 천진의 특산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부리 만두, 마화, 찹쌀도넛입니다.

2. 학과 및 수업소개 (현재 이수학점, 과목수강의 난이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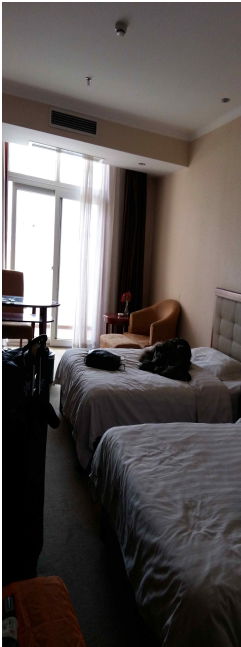


천진 사범대학교 어학연수 과정은 총 6개의 반이 있습니다. A와B, C와D, E와F로 묶여있고 각각 고급, 중급, 초급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급반의 경우에는 듣기, 말하기, 한자, 읽기를 배웁니다. 중급반은 말하기, 듣기, 문법, 읽기의 과목이 있습니다. 고급반은 쓰기와 문화(역사 포함) 등을 배웁니다. 선생님의 교과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시각자료를 통해 공부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수업이나 현장 체험 학습 등이 그것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의 네 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중국어 수업을 듣고 갔다면 D반 이상부터 수업 듣기를 권장합니다. F반은 완전 기초반이기 때문에 중국어 기본기가 있지만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E반 수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초급반을 제외하고 중급과 고급반의 수준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면 각각 A반과 C반 수업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 외에도 체육대회, 학예발표회, 반 별 행사 등 다양한 일정으로 학생 참여형 행사가 종종 있는 편입니다. 또 사범대에서 들은 수업을 한남대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최대 12학점이 끝입니다. 과목 당 3점 꼴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숙사 및 유학생 현황 (기숙사 숙소 및 사용요금을 정확하게 기재, 기숙사 사진 첨부)



사범대는 한남대와 협정을 맺어서 기숙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학교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달에 한화 30만 원 정도의 돈을 낸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기숙사는 호텔을 개조한 건물이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2인 1실에 화장실이 딸려있는 방입니다. 쓰레기는 매일 갈아주시고, 침대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십니다. 몇 년 후에는 외국인 기숙사 건물을 새로 증축한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방 안에는 세탁실이나 조리시설이 없습니다. 1층에 공용주방과 세탁실이 있습니다. 공용주방에는 전자렌지와 인덕션 등이 있습니다. 세탁실은 코인이 필요 없고 본인의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준비하면 됩니다.

유학생 전체를 따져보았을 때, 한국인 비율은 TOP 4에 듭니다. 천진에 있는 다른 학교와 비교하자면 한국인의 비율이 적지만, 학교 전체에서는 평균적인 비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 문화권에 비해 유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4. 식비, 용돈, 책, 핸드폰 등의 기타 생활비(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소요비용)

식비 부분 : 외국인 기숙사가 본교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식당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에 음식점과 마트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한인 타운과 배달음식으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기 좋습니다. 오어러머(중국외식어플)를 통해서 배달하면 좋습니다. 시장, 음식점, 편의점, 마트, 길거리음식 등이 바로 근처에 위치해 생활적인 부분에서 불편할 것은 없었습니다.

용돈 부분 : 한국과 비슷한 정도로 쓴 것 같습니다. 체감상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통신 부분 : 중국에는 이동과 리애통의 통신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동을 썼었는데, 리애통의 인터넷이 더 빨랐습니다. 기숙사에도 와이파이기가 있었고 외출 때가 아니면 쓸 일이 없었기에 가장 작은 요금제를 썼습니다.

5. 이 학교를 선택한 후배들에게(장단점 등)

장점 :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알려주십니다. 모르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조가 많이 부족했는데, 일대일 코칭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학생들 특성 상, 유학을 왔으니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 대학생들의 여행 클럽을 소개해주고 같이 여행을 떠나며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좋았습니다.

단점 :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유학생 캠퍼스와 본 캠퍼스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든 멀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을 어

떨게 가지느냐 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소통한다면 학교와 거리 어느 곳에서든지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6. 유학생활을 마친 소감

생각보다 일 년이라는 유학생활은 짧게 느껴집니다. 처음 유학에 임하는 마음과 끝날 때의 마음가짐 역시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열 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중국에 머무르고 싶다는 것이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음식도 진짜 맛있고, 살기도 좋습니다. 그 동안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해소될 만큼 만족한 유학생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학을 통해서 그 전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자면, 유학 생활 중 생수 한 병을 사러 나가는 일도 여행이었습니다. 매일 가는 시장과 음식점, 그리고 시내까지 어느 순간 일상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여행이라는 것이 새로운 설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매체나 책이 아닌 내가 직접 경험은 중국을 보면서 견문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